

GLOBAL TREND

# 세계지방자치동향

일본

일본 지자체가 실시한 ‘아동·육아 지원 신제도’의 성공 사례 3선

일본

일본 저출산 대처의 모범지역 사례

일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 논의 -쓰시마시(対馬市)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로스앤젤레스 시(City of Los Angeles)

“잔디밭 교체 프로그램(Turf Replacement Program)” - 수자원 보호를 위한 리베이트 정책

한국

건설안전과 지역발전



## 일본 저출산 대책의 모범지역 사례

### 개요

- ▶ 일본 저출산 대책의 모범적인 지역 사례로 들 수 있는 오카야마현 나기초는 주민참가형 시책으로 2019년 합계 특수출생율 2.95명을 기록하였음
- ▶ 나기초의 사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중앙정부의 대응과 한계

- ▶ 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은 저출산 대책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음
- ▶ 그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기시다 정권에서는 2023년 4월 어린이가정청을 출범시켰고 ‘어린이 미래 전략 회의’(이하 전략회의)도 발족시켰음
- ▶ 전략회의는 같은 해 6월 13일 ‘어린이 미래 전략 방침’(이하 전략방침)을 공표하여 다양한 방면에서의 저출산 문제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 하지만 저출산 대책은 젊은 층이 어떤 요구나 기대가 있는지 가까이서 들어가며 시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률적인 서비스 제공이 되기 쉬운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는 대처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 어린이가정청은 저출산 대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혼슈(本州)의 서쪽에 위치하는 오카야마현(岡山県) 나기초(奈義町)를 들고 있음(현(県)은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이며, 초(町)는 한국의 시·군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임)

### 주민참가형 저출산 대책

- ▶ 나기초는 인구가 5700명 정도이며 2022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약 60억 엔에 불과하나 저출산 지원책에 전체 예산의 15%를 책정했음
- ▶ 이 마을은 ‘육아 응원 선언’을 하며 육아 세대의 요구에 세심하게 대응하면서 저출산 대책을 위해 독자적인 지원을 충실히 하고 있음
- ▶ 또한 세대간(世代間)에 걸쳐 지역 전체가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육아를 마친 이들이나 고령자들도 함께 참여하는 ‘주민참가형’ 육아지원 서비스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
- ▶ 이주자(移住者)들에게도 격의 없는 지원을 하며 사회 전체의 의식을 바꾸고자 다양한 노력을 해 왔음

## 장기적 지원의 저출산 시책과 주민의식 제고

- ▶ 나기초는 저출산 대책의 사례를 배우러 많은 전국 지자체 관계자들이나 해외 자치단체들이 방문하는 마을이기도 함
- ▶ 예산 배정만이 아닌 다른 복합적인 요인도 함께 작용하며 2019년 합계 특수출생률(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 수)이 2.95명(전국평균은 1.36명)을 기록하였다는 뉴스를 통해 저출산 대책에 있어 ‘기적의 동네’라는 말도 등장했음
- ▶ 나기초는 주민의 요구를 저출산 시책에 반영하며 주민의식을 높여갔고 계속해서 지원책을 확충하는 노력을 해 왔음
- ▶ 나기초의 정보기획과 모리야스 에이지(森安栄次)씨는 “주민 요구사항을 토대로 10년, 20년에 걸쳐 경제적, 정신적인 지원을 조금씩 늘린 결과”라 피력하고 있음(일본경제신문 2022년 10월 20일자)
- ▶ 주민과 행정당국 간에 “육아 지원이 건강한 마을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함께 하며 주민 전체가 육아를 응원하는 분위기를 창출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고, 나기초행정당국은 육아 간담회 개최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도 육아 지원 담당자로서 관여하는 체제 구성에 힘을 기울여 왔음

## 나기초의 주요 자녀양육 지원책

- ▶ <표 1>은 오카야마현 나기초의 주요 자녀양육 지원책을 정리한 것임

표 1. 오카야마현 나기초의 주요 자녀양육 지원책

고등학교까지 의료비 자기부담 없음
시외 산부인과 진료 받을 시는 2만5천엔~ 5만엔 지급(1엔=10원)
고등학생의 취학지원(연 13만 5천엔)
다자녀 가구의 보육료 경감
재택육아지원: 취학 전 자녀에게 월 1만 5천엔 지급
예방접종 전액 보조
초등학생 입학비 무료
마을 내 거주자에게는 대출 장학금 변제의 반액 감면
경제 여건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연 60만엔의 장학금 무이자 대여
초중학교 교육재료비 무료화[無償化]
아이 잠시 맡기기 보육 지원
보호자 당번제를 정한 주민 학부모의 자주보육을 실시
육아 거점으로 ‘나기 차일드 홀’이라는 모임 광장을 운영하며 상담원(어드바이저) 배치

출처: 일본경제신문 2022년 6월 30일자 및 10월 20일자를 참조하여 필자 작성.

## 육아 거점인 ‘나기 차일드 홈’이라는 모임 광장의 역할

- ▶ 나기초는 육아 거점으로 ‘나기 차일드 홈’이라는 모임 광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가벼운 마음으로 놀러 갈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는 주민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함
- ▶ 2007년 개설한 이 모임 광장에서는 육아 상담원(어드바이저)을 배치하여 영·유아와 그 부모가 언제라도 상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서로 간의 의견도 교환하고 있음
- ▶ ‘나기 차일드 홈’은 육아 중인 엄마나 아이뿐만 아니라 고령자도 참여하는 주민참가형으로 운영되고 있음
- ▶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 중인 부모의 요청을 반영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형식임
- ▶ ‘나기 차일드 홈’과 같은 모임 광장의 운영은 일시적인 급부금 지급과는 달리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주민들이 상호간의 연결을 통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 마을 독자적인 자치의식의 중요성

- ▶ 일본에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정권(2001년~2006년)에서 자치단체간 합병이 빠르게 추진된 적이 있었음
- ▶ 나기초가 저출산 문제 대처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것도 합병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에서 비롯되었는데, 나기초는 지역이 매몰되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강했고 2002년 합병을 하지 않고 단독 정제(单独町制: 단독으로 마을 운영)를 결정했음
- ▶ 마을 의회 의원 정수 삭감 개혁을 단행하여 1억 5,600만엔의 저출산 대책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고령자 중심 정책으로부터 젊은이·육아 세대용 시책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시책의 중심을 인구 유지를 가져오는 쪽으로 바꾸었음을 뜻함
- ▶ 오쿠 마사치카(奥正親) 정장(町長: 대략 군수에 해당)은 “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젊은층을 끌어들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안심하고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이 대전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음(요미우리(読売)신문 2023년 4월 8일자)
- ▶ 인구 유지는 마을의 기반이므로 세금을 들여서라도 유지해야 한다는 자세였음

## ‘일자리 편의점 사업’을 선구적으로 시행

- ▶ 육아 지원에 더하여 젊은층의 정주(定住)나 취업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 정비를 하고 공업 단지를 마련하여 기업 유치도 진행시켰음
- ▶ 나기초는 “하루 중 일부 시간만 일하고 싶다”는 요구를 가진 주민과 그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연결하는 ‘일자리 편의점 사업’을 2017년 선구적으로 시행함

- ▶ 일자리 편의점 사업은 스마트폰 교실 운영이나 농사 지원과 같이 일시적인 대책에 그치지 않고 시설 별초 작업이나 설문 집계와 같은 마을 업무도 주민에 의뢰하여 행정 효율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일정 수입이 주민에게 돌아가게 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냈음

## 경제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 두 가지 측면에서의 보육 지원

- ▶ 경제적 지원으로는 맞벌이 가정이 마을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경우 보육료는 국가 기준의 절반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둘째 아이는 그 반값, 셋째 아이 이후로는 무료로 하고 있음
- ▶ 또한, 자녀가 어릴 때는 함께 지내고 싶어하는 부모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택 육아 가정에는 재택육아지원금으로 취학 전 자녀 1인당 월 1만 5000엔을 지급하고 있음(<표 1>참조)
- ▶ 재택육아지원금은 2016년 시작된 마을의 대표적인 시책으로 모든 육아 가구를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음
- ▶ 현대 여성 중에는 육아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부모도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신적 지원도 하고 있음
- ▶ 위에서 언급한 '나기 차일드 홈'은 보육교사가 상주하는 상태에서 부모가 교대로 아이를 맡기고 돌보며 부모 간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정신적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보육 시설이기도 함
- ▶ 육아가 고통이 아닌 육아를 즐길 수 있는 마을을 운영하고자 함

## 나기초의 육아지원 효과로부터의 시사점

- ▶ 지난 20년간 일관되게 육아지원책을 충실하게 마련해 온 나기초의 저출산 대책이 결실을 보아 높은 출산율을 달성하고 있음
- ▶ 마을 전체의 합계출생률은 2.30명 정도를 보이고 있으며 전입과 전출의 차이인 '사회 증감'이 플러스 값을 보이고 있음(요미우리 신문 2022년 10월 20일자)
- ▶ 2022년도는 70명의 전입 초과를 보였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격근무도 상당 부분 정착되면서 이주자가 늘고 있음
- ▶ 중앙정부로서는 아동수당과 같은 일률적인 경제지원 충실이 요구되지만, 한편으로 육아지원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기초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음

국중호 통신원

kook@yokohama-cu.ac.jp  
요코하마시립대 경제학 교수